

문화방송 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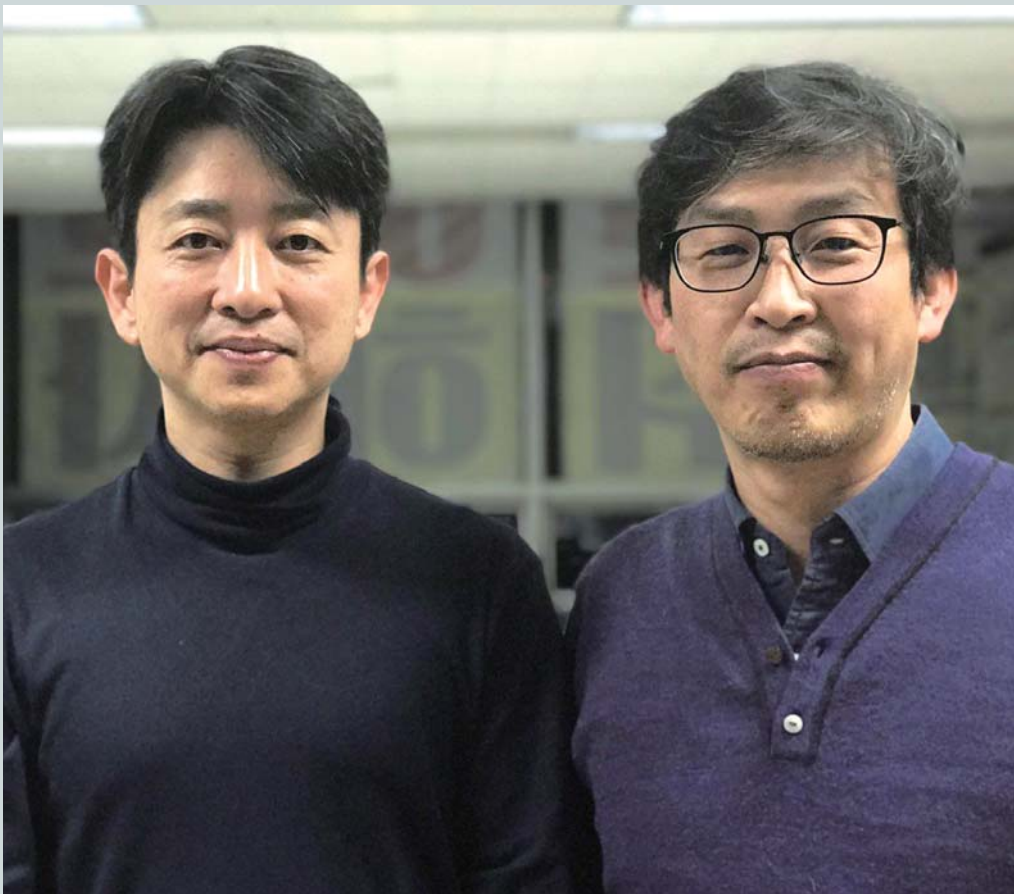
무단협 1486일째

타임오프해지 418일째

지명파업 313일째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MBC본부 12기 집행부 오늘 출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12기 집행부가 오늘(10일) 상암동 신사옥에서 출범식을 갖고 2년 임기의 활동에 돌입한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진행될 출범식은 '공영방송 MBC 재건'을 향한 12기 집행부 구성원들과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전국 조합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조합의 전국 각 지부에서 실시된 12대 집행부 임원 선거 결과, 러닝메이트로 단독 출마한 김연국·도건협 조합원이 각각 제12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됐다. 두 후보는 투표율 94.9%, 찬성률 9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번 선거는 서울 상암동 사옥 경영센터 로비와 미디어센터 조합 사무실, 전국 각 지역지부 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바일 선거관리 시스템(K-Voting) 등으로 동시 실시됐다. 특히 사측의 투표 방해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상암동 이전 이후 처음으로 경영센터 메인 로비에 투표소가 설치돼 수백 명의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조합은 지난달 23일 공정방송 단체협약 재취를 위한 지명 파업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오전 6시를 기해 파업 대상자는 종전 1인(조능희 11기 위원장)에서 3인(김연국·전성관·남상호 조합원)으로 확대됐다.

김연국 위원장 · 도건협 수석부위원장 97.4% 지지로 당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12대 임원 선거 결과 공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규약 제48조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된 본부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당선자

- 위 원 장 : 김연국조합원(서울지부)
- 수석부위원장 : 도건협 조합원(대구지부)

2. 투표·개표 결과

- 총 조합원 : 1,603명
- 유효투표인원 : 1,562명
- 투표자(투표율) : 1,521명(94.9%)
- 찬성자(찬성률) : 1,482명(97.4%)

2017. 2. 8.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선거관리위원회

MBC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전국조합원 결의대회

11기 집행부 이임 및 12기 출범식

오늘(10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 행사는 1시간 정도 짧고 굵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MBC 조합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취임사

Remember 1987, Reboot 2017



김연국
위원장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였습니다. 정치권력과 재벌의 추악한 이면을 가장 용감하게 고발했습니다.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최전선에서 혁신하고 이끌었습니다.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뉴스, 교양, 드라마, 예능, 라디오, 전 분야에서 최고의 방송사였습니다. 신뢰도와 영향력 모두에서 선두를 다투었습니다. 이 방송사의 성공은 각 부문과 지역의 개성 넘치는 구성원 모두가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7년 전에 끝이 납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방송 장악을 위해 치밀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KBS, MBC, YTN이 차례로 장악됐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MBC 무력화를 위해 파견한 김재철·안광한 사장 재임 기간 MBC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권력 감시와 고발, 의제 설정 기능은 실종됐습니다. 방송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위대로 전락했습니다. 구성원들은 자율과 협력 대신 일방향 지시의 수동적 도구로, 저열한 평가와 경쟁으로 내몰렸습니다. 인사에서 감사까지 기초 시스템마저 파괴됐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려던 구성원들은 해고와 징계, 유배로 격리시켰습니다. 늘 떠들썩하게 살아 있던 방송사가 이제 내면화된 감시가 지배하는 거대한 파놉티콘으로 전락했습니다.

시청자와 국민은 묻습니다. MBC가 되살아날 수 있는가? 드라마도 뉴스도 종편이 더 잘하는데 꼭 MBC를 살려야 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 정권이나 재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소유한 방송사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공영방송을 지탱해온 이 가치와 구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MBC에 대한 격렬하고도 차가운 냉소입니다.

우리는 과연 MBC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 앞에서 MBC 취재진은 조롱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대신 독재자의 목소리가 뉴스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MBC의 젊은 구성원들은 자괴감에 빠져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해 12월 한국 언론 사상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언론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민주방송실천위원회를 만들어 편성과 보도, 제작을 감시했고, 단체협약으로 공정방송의 구조적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폭발해 1990년대 중반부터 MBC는 최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냉소 받고 조롱당하던 MBC가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가 되는 데까지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6월 항쟁과 공영방송 체제,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 30년을 맞았습니다. 외부 환경은 분명 나아질 것입니다. 해고된 분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MBC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싸우지 않으면서 외부의 도움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취약한 구조를 단단하게 하는 법 개정,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합리적인 경영진 선임은 공영방송 종사자인 우리 자신의 각성과 치열한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2017년은 19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진보한 공영방송 체제를 만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공영방송을 지켜내고 도약시킨 주역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취임사

우리 안의 비겁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도건협
수석부위원장

새로운 MBC는 적폐의 청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를 망친 부역자들이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역자는 서울에만 있지 않습니다. 김재철과 안광한이 지역에 내리쬐는 낙하산 사장들이 지난 세월 동안 한 일은 지역 MBC 조직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불문하고 오직 자신만 바라보는 친위부대를 만들어 조직 내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공공연하게 혐오하고, 이를 자랑삼아 드러냈습니다. 지역 MBC의 미래를 고민하기는커녕 일신의 안위를 위해 회사 돈으로 이곳저곳 로비하고 줄 대기에 바빴습니다. 콘텐츠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손쉬운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매달려 방송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지방권력과 유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역 MBC의 공정방송은 훼손되고 조직은 망가져 갔으며 구성원들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강고해 보였던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가슴 저리

는 기쁨을 느낀 것이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MBC 내부의 권력의 부역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그들의 토대 역시 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부역자들의 뒤에 몰락해가는 권력이 있다면, 우리 뒤에는 촛불시민들이 있습니다. 안광한 체제에서 벌어진 탄압의 광풍은 그들의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겁 많은 개가 짖기 마련입니다. 국민들이 이미 MBC를 버린 것 아니냐는 걱정은 떨쳐버립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못했던 것을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촛불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정방송의 복원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잠시라도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분노를 티뜨립시다. 우리에게는 처참하게 무너진 MBC를 다시 일으켜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공정방송의 적들을 쓸어버리고 서울과 지역 모두에서 새로운 MBC를 건설합시다.

이임사

‘단결과 참여’,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켜갑시다



조능희
11기 위원장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어느덧 2년의 임기가 지났습니다. 오늘 11기 집행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저희 집행부는 맡겨진 과업을 모두 12기 집행부에 넘깁니다. 해결 못한 많은 짐을 넘기는 저희들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합원 여러분을 믿고 소임을 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 집행부와 조합원 여러분을 믿고 훌가분하게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투병하고 있는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해직자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전보를 당한 조합원들이 영뚱한 일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반면에 국정농단의 공범과 부역자들은 MBC를 망가뜨리며 계속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겁박한 전과를 자랑하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적 적들이 저지른 불법, 위법, 권한남용, 배임, 방송조작, 공금낭비 등의 행위는 전혀 용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방지법은 2월에 반드시 국회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사 이사진의 여야 7:6 구성, 사장선임시 2/3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회사와 구성원이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 도입 등이 언론장악방지법의 핵심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박근혜 방문진’이 감히 사장 선임에 나섰습

니다. 박근혜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여러분,
저들에게 맞서서 단체협약조차 없는 조합을 이끌며 싸워야 하는 새 집행부의 어려움이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여러분께서 조합을 지키며 집행부를 성원하고 지지하는 한 우리 조합이 못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창립 이래 30년간 유지해 온 ‘단결과 참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김재철-안광한 일당의 비열한 조합말살 시도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11기 집행부를 대신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조합을 지켜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께서 저희 집행부에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는 저희들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11기 집행부는 조합의 한 일원으로 돌아가 충실하게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며 집행부를 성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만세! 공정방송 만세!

이임사

‘촛불명령’을 받들어 기필코 승리합시다



방창호
11기 수석부위원장

지부장 2년, 본부 수석으로 2년. 지난 4년간의 시간, 참으로 먼 길을 쉽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능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 또한 부족한 제가 수석 부본부장이란 중책을 맡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난 2년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이 주신 과분한 관심과 배려와 더불어 뜨거운 동지애를 나눠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며 가졌던 초심을 되새기며 무너진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력의 시녀, 청와대 방송’이란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 MBC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짐을 다시 차기 집행부로 넘겨야 할 것으로 보여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투쟁의 기록들과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조합을 굳건히 지켜온 전국 1700 조합원 동지들이 있기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촛불은 명령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촛불은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보도가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

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 공영방송이 헌법과 법률 질서를 파괴하는 온상이 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촛불의 명령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는 12기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시시오.

단일노조 연대의 힘은 저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분열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조합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MBC의 자산인 네트워크 체제를 상생의 수단이 아닌 분열의 수단으로 저들은 활용했습니다. 단일노조를 끝까지 지키고 무너진 부분은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유난히 긴 겨울 칼바람과 맞서 싸우며 걸어왔습니다. 겨울은 싫지만 사시사철 푸름을 간직한 나무와 색이 바래는 나무를 쉽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분노와 아픔은 곧 다가올 밝은 내일의 작은 시련이라 여깁시다.

만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 MBC에 끼친 해악

‘MBC 파괴’ 지령 받은 박근혜 정권의 특공대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돈 속에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새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MBC를 철저히 망가뜨린 공범인 ‘무자격 방문진’의 경영진 교체 시도는 안팎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범 30년, 권력의 힘겨루기 속에 파행과 역주행을 거듭해온 방문진의 어제와 오늘을 긴급 점검합니다.

현 10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지난 2015년 8월 출범했다.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지만, ‘고영주 방문진’이 MBC에 끼친 해악은 단연 ‘역대급’이다. MB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의 기본 책무는 철저히 팽개쳤다. 보도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제작 조직이 붕괴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여권 추천 이사들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이사회 운영은 극도의 폐쇄성을 드러내며 파행으로 흐르기 일쑤였다. 10기 이사회 구성 당시부터 논란이 돼온 정치적 편향성은 그 일탈의 출발점이었다.

■이념적 편향의 극치

9기에서 감사로 재임하다 10기 이사진에 합류한 고영주 이사장은 술한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놓고도 되레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을 지적하는 적반하장으로 빈축을 산 인물이다. 문제의 발언은 고 이사장이 2008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단체의 위원장 자격으로 한 말이다. 10기 이사진 출범 당시 이 단체에는 ‘방문진 이사 3연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김광동 이사와 권혁철 이사(신임)도 소속돼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6월 만들어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KBS 등 언론사를 통한 친북 반국가활동 전파 실태 조사’를 추진 사업에 명시한 단체이다. 2010년에는 ‘친북인명사전’에 실릴 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을 포함시켜 논란을 불러왔다. 사실상 극우 이념을 표방한 단체 한 곳에서 방문진 이사를 3명이나 배출한 것이다. 이들을 포함한 여권 추천 이사 6명을 탄핵당한 박근혜 청와대가 꽃아 넣었으니, 10기 이사진은 이미 구성단계부터가 비극의 서막이었다.

방문진은 광고비 책정에서도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0기 이사진 출범 이후 방문진 광고는 <미디어워치>, <조갑제닷컴>, <뉴데일리> 등 극우 성향의 매체들 위주로 집행됐다. 지난해 9월 방문진이 문미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방문진 사업 등의 공보·홍보 지출비 3520만 원 중 62.5%인 2200만 원이 <미디어워치>와 <뉴데일

리>, <조갑제닷컴>, <폴리뷰>, <문화일보> 등에 집중됐다. MBC 자회사인 iMBC를 빼면 나머지 매체는 <대학내일>이 전부였다. 방문진의 광고비 집행방향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국회 미방위 의원들과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들의 잇단 지적도 소용없었다. 방문진은 올해에도 방송 관련 학술연구 및 사회 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를 하면서 광고 매체로 문제의 보수 매체들에 절반 이상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복면 이사회’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사실상 ‘밀실 회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고영주 이사장 등 여권 이사들은 회의 도중 수시로 비공개를 요구한다. 속기록이 작성되고는 있지만 6개월 뒤 폐기된다. 공개되는 회의록조차 발언자의 실명 없이 요약된 내용만 기록된다.

이런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고영주 방문진은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4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출한 <속기록 및 회의록의 보존과 공개 형식에 관한 건>을 놓고 여야 이사진 사이에 설전과 고성, 삿대질이 오갔다. 결국 표결 끝에 논의조차 무산됐다. 기가 막힌 건 제출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안건을 논의할지 말지’를 놓고 표결을 벌여 아예 논의자체를 막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6:3의 수적 우위를 악용해 이사회에서의 안건 제기조차 막은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9월 22일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정기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제출한 안광한 사장 해임결의안에 대해서도 여권 추천 이사 6명은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을 강행해 ‘이사회 안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트로이 키트’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사찰로 안광한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과 간부들에 대해 지난해 5월 ‘공동 불법행위자’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도 ‘표결’을 거쳐 문제 삼지 않았다. 방문진법에는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적시돼 있고, 비공개 사유도 따로 명시돼 있다. 최강욱 이사(야당 추천)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왜 공개를 회피하고 기록을 안 남기도록

복면 쓰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웃지 못할 필리버스터(?)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이사회에서는 고영주 이사장과 여권 추천 이인철 이사가 난데없이 45분과 1시간씩 장시간 발언을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표가 왜 공산주의자인지’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이 안건으로 제기한 ‘고영주 이사장 거취의 안’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두 이사들의 장시간 발언 이후에도 여권 이사들은 문 전 대표를 성토했다는 말이 이어갔고, 야당 이사들의 대응 발언이 시작되자 여당 이사들이 자리를 뜨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MBC 붕괴’의 배후이자 주범

이러다보니 여권 추천 극우 성향 이사들과 MBC 경영진 사이의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심심치 않게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22일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방문진 감사보고장. 이사회에 출석한 MBC 감사는 방문진 이사들에게 보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버텼다. ‘명예훼손 및 자료유출이 우려되고 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감사 보고를 위해 나온 사람이 자료도 못 주겠다고는 어불성설이자 유체이탈의 전형적 태도였다. 방문진을 온전히 허수아비 식물기구로 전락시킨 셈이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역시나 이를 묵인했고, 야권 이사들이 언성을 높이는 홍역을 치른 끝에 복사본이 제공되는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최승호PD와 박성제 기지에 대한 ‘불법 해고’를 자백한 ‘백종문 녹취록’ 공개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뒤 백종문 본부장이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중복질문은 피해달라”고 엄호했다. 질의와 답변이 몇 차례 이어진 뒤에는 아예 “중복되는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며 노골적인 편들기에 나섰다. 이 녹취록에서는 문제의 극우 매체 기자가 방문진 이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면서도 일부 여권 추천 이사들은 지난해 7월 대거 외유성 유럽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연구조사’가 목적이었다고 한다. 비용은 1억 원 가까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장국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로 모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제도가 우수한 선진국들이다. 이미 국내에 각종 연구 자료와 사례 분석들이 충분한 의제들이다.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는데 철저히 배후 노릇을 해 놓고 무슨 면목으로 이런 핑계를 내세워 출장을 다녀온 것인지 한심하다. 그나마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가 오늘날 MBC의 참담한 현실인지 되묻고 싶다.

‘30년 방문진’ 개혁, 왜 시급한가

‘87년 체제’ 타협의 산물... 청와대 ‘입김’에 취약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으로 촉발된 거대한 촛불시위는, ‘알 권리’가 무시당할 때 시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성(反省)’보다는 ‘탄압(彈壓)’을 택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 비선조직 등 모든 공식·비공식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철저히 괴롭혔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YTN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고 저항하는 YTN 노조를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해임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마지막 칼날이 MBC에 겨워졌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눈엣가시였던 MBC. 하지만 당장 어쩔 방법이 없었다. MBC의 사장 선임 권한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장 포함 방문진의 9명의 이사가 사장을 선임했다. 3년 임기의 방문진 이사들을 재편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8월이나 가능했다. MBC 구성원들에게 방문진의 존재가 각인되기 시작한 것이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대부분의 MBC 구성원들은 방문진의 존재감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1988년 12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방문진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분위기 속에 탄생했다. 당시 KBS가 보유하고 있던 MBC 주식의 처분과 MBC 소유구조문제 해결을 위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가 일정부분 타협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16조에 불과한 ‘방문진법’은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제1조) 조항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사장 추천”(제10조10항) 조항을 제외하고는 특기할만한 점이 없을 정도로 소략하게 이뤄져 있다. 방문진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9조4항)한다. 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가 호선하게 되어 있다. 법 조항과 방문진 정관을 다 뜯어보고 살펴도 그 어느 곳에도 방문진 이사 9명이 여야 6대3 비율로 선임된다는 조항은 담겨 있지 않다. 1988년 제1기 이사회(박용구 이사장)가 구성되고 지난 2015년 제10기 이사회(고영주 이사장)가 꾸러질 때까지 29년간 방문진 이사회를 지배해왔던 “여야 6대3 구조”는 암암리에 작동한 원리였던 것이다.

2009년 8월 9일 이명박 정부 아래서 오롯이 새롭게 꾸러진 제8기 방문진 이사회(김우룡 이사장)가 등장하면서 방문진은 MBC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굳어버렸지만, 여권추천 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6대 3이라는 우세한 머릿수로 모든 사안을 표결로 밀어붙이는 ‘막무가내 의결’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집권세력이 방문진 이사 정족수의 2/3를 가져가고 결국 사장 선임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방문진의 태생적 한계는 예전에



도 있었다. 그에 따라 함량미달의 친정부 반공영적인 사가 사장에 선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MBC의 공영성과 공정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수호하는 첨병역할을 자임한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덕분에 방문진이 크게 상식과 금도를 넘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
MBC의 공영성을 수호하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견제 덕에
방문진은 ‘상식’을 짓밟지 못했다.
하지만 MB정권 출범 이후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

김우룡 이사장의 ‘MBC 안의 좌파 청소’ 발언은 아마도 모든 MBC 구성원들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을 것이다. 현 10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도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늘 구설수에 오르고 소송까지 당했지만, 방문진 이사장의 설화(舌禍)의 원조는 단연 김우룡 이사장이다. 그는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고 김재철 사장을 선임한 후 “MBC 안의 좌파들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김재철 사장에게 맡겼다”고 월간지 기자에게 떠들어댔다. 게다가 김재철 사장이 ‘좌파 청소’에 미적거리자 큰집(청와대)까지 불려가 조인트까지 맞았고도 나불거렸다. 큰 충격이었다. 공영방송 MBC를 두고 이런 벌거벗은 작태가 벌어진다는 것에 모든 MBC 구성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김우룡 이사장은 자폭발언으로 날아갔지만 그와 함께 선임된 여권 추천 이사들은 이후 3년 간 MBC를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섰다. 김광동 이사는 8기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후 9기, 10기 연속 3연임하면서 직업이 ‘방문진 이사’인 게 아닌가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터춤투대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차기환 이사는 8기와 9기 연속 이사직을 연임하고 MBC는 충분히 손 봐줬다고 생각했는지 지금은 KBS 이사로 옮겨갔다. 최근엔 박근혜의 변호인에 선임되어 ‘태블릿 PC 조작설’ 전파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최홍재 이사는 MBC를 망가뜨린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직

에 임용되는 출세를 하게 된다. 지난 총선에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서울시 은평갑에 출마까지 한다. 떨어지긴 했지만, 정권이 맘먹고 쫓아 넣은 이들이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MBC 망가뜨리기’를 가능케 했다.

2008년 이후 MBC에서 10명이 해직됐다.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만 143명이다. 111명의 현업 언론인들이 제자리에서 쫓겨나서 아직도 복귀하지 못했다. 빈 자리를 마구잡이식 시용과 경력 채용으로 메웠다. 그 결과가 지금 MBC의 모습이다.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은 외면당하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무리와 안광환 경영진은 오히려 더 가관이다. 현 방문진 체제의 폐단을 없애려고 새 방송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도 ‘새 사장’을 뽑겠다고 나서고 그 사장직에 응모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후안무치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라고.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하고, 소송에서 지자 담당 판사를 저급하게 매도하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어떻게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냐고. 일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방문진 여권 이사회 가운데는 대학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 대학총장까지 있다.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불법(不法)하고 부도덕(不道德)했다. 그 결과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고 결국 국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리 보수쪽 인사라도, 아무리 여권추천 인사라도 이런 MBC의 현실에 눈을 감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놔오니 으레 그럴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시스템에 치명적인 약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볼 때가 된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이 지났다. 2017년 MBC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다. 방문진 시스템의 한계는 명확해졌다. 폐해가 완전히 드러났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다 보여줬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방문진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상식(common sense)을 지닌 정상인들이 모여서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새 방송법은 김재철 방지법이고 안광환 방지법이며 고영주 방지법이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신임 지부장 당선의 변



광주 **이재원**
01년 입사 / 보도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한발 한발 정도의 길을 걸어 가겠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길이 됩니다. 공영 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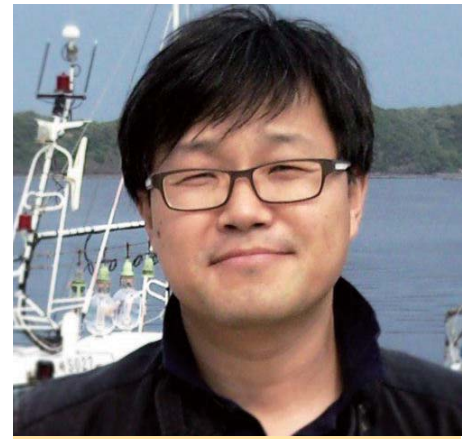
대전 **이한신**
01년 입사 / 사업

“혁명이란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엠빙신’은 안 됩니다. MBC가 다시 국민의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부활하는 그날까지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목포 **김창진**
00년 입사 / 기술

시대와 국민이 변화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보도, 진실보도의 MBC로, 자랑스럽던 그 때로 다시 돌아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함께 열싸우고 MBC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나갈시다.



부산 **문상환**
97년 입사 / 기술

부족한 지부장에게 힘을 보태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합니다. 아울러, 암흑 같은 권위의 시대에 고통 받고 있는 조합원들을 대신해 밀바닥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청주 **이태문**
89년 입사 / 편제

와신상담 기다리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선 '정권 입맛 사장 선임구조 방지법'을 꼭 쟁취해야 합니다. 자율이 실종된 지역사 경영현실... 권력과 당근에 양심을 팔며 춤추는 부역자들... 지역MBC 모든 적폐도 올해는 함께 꼭 청산합시다.



원주 **차승헌**
97년 입사 / 보도

이건 뭐 직업 정치인도 아니고 불과 2년만에 출사표를 또 적습니다. '내가 이럴려고 MBC 들어왔나'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괴감 말고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그런 일터, 조롱받는 엠빙신 말고 사랑받는 마봉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뚝뚝뚝 가겠습니다.



전주 **고차원**
97년 입사 / 보도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싸움을 꼭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되찾고 강화하며 진짜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합원, 동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포항 **김성일**
96년 입사 / 광사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언론 내부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제1 목표요. 훼손된 자존감의 완전회복이 제2의 목표요. 앞뒤가 꼭 막혀버린 언론·노동환경에서 언론의 제자리찾기와 노동가치의 상호인식을 통해 살맛나는 세상,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3의 목표입니다. 함께 노력해 반드시 이롭시다.



강원영동 **민기원**
03년 입사 / 편성

난생 처음 자전거를 탈 때처럼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밟고 거침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중심을 잡고 조합원들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대구 **이동윤**
00년 입사 / 기술

MBC가 어떤 곳입니까? 선후배 동료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숭고한 일터입니다. 지금은 비록 동토의 땅이 되었지만,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다시금 새싹이 움트게 합시다. 12기 집행부가 그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안동 **김구한**
98년 입사 / 편성

힘을 모아준 안동지부조합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빼앗겨 버린 MBC언론노동자의 자긍심을 찾는 그날까지 선봉의 기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 **박광수**
95년 입사 / 보도

할 말은 하는 조합,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조합, 소통의 구심이 되는 조합, 그리고 절도있게 헌신하는 지부장. 기본의 실천으로 MBC의 새벽을 앞당기는 밑일이 되겠습니다.



춘천 **최현영**
95년 입사 / 편제

군불을 때며 추위에 견뎌왔습니다. 자연스레 봄이 오든지, 우리가 장작불로 불을 더 지피든지 따스함이 분명 올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뛰겠습니다.

서울지부 부위원장 당선의 변



김철영

편제부문 부위원장

끝까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제는 저도 시선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많은 동료, 선배들의 권고를 외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MBC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구성원들의 패배의식과 앙금을 걷어낼 것입니다. 편성 제작부분의 수많은 현안과 켜켜이 쌓인 불신과 부조리를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낮은 자세로 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전의 우리가 알던 MBC로 다시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민

보도부문 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높은 지지율에서 우리 뉴스를 되살려야 한다는 보도부문 조합원들의 절박함을 읽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또, 뉴스 경쟁력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랑 받던 기자들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면 됩니다. 해체된 보도영상 조적을 다시 만들면 가능합니다.

시청자들께서 붙여주셨던 우리의 이름, '신뢰도 1위, 선호도 1위 MBC 뉴스'.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소형

경영부문 부위원장

2001년...노조와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03년 MBC에 입사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즐거웠습니다. 회사일 뿐인데, 나의 가치가, 나의 정체성이 회사와 함께 간다는 게 힘겹지만 한 회사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견주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부심, 즐거움, 연대감의 그 공간은 부끄러움, 죄책감, 절망감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을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검은 마음을 간직한 채 오늘, 여기,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미래가. 지난 5년 우리 모두가 힘겹게 버텨왔으니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울어도 같이 울고, 웃어도 같이 웃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작점에 설 수 있게 용기를 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한도

기술부문 부위원장

부담감 백배지만 나사게 되었고,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신 기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찬성표에는 지지의 의미도 있었지만 열심히 잘 하라는 격려와 책찍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소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기술 선배님들께서 MBC와 조합에 대한 의견을 잘 주시겠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진심으로 일하고 싶은 MBC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희

영미부문 부위원장

좋은 일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에 살짝 설렘니다. 새로운 일 한해가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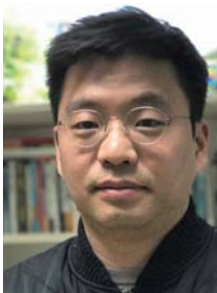
우리 MBC가 행복한 일터가 되는 일에 영미 부문 선배님과 후배님의 뜻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바람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영미 노조원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전성관 사무처장



김유호 정책국장



장준성 교섭쟁의국장



허유신 홍보국장



남상호 보도민실위간사



이중각 편제민실위간사



이성구 복지사업국장



송진우 연대협력국장

‘재건 MBC’ 2017년 조합원의 다짐

서울지부 이덕영 조합원

취재 현장에서 MBC를 복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저와 제 동기인 광동건, 전예지 기자는 그동안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공개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저희를 격려하며 힘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봤자 MBC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MBC가 변화하기 위해 저희 같은 기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면서 질책하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책은 오히려 보도국 소속 기자로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신뢰 회복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선 그에 걸맞은 가치가 있는 기사를 쓰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뼈아프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를

보호하던 언론으로서 MBC 위상을 되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기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선배들에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다른 기자보다 더 많이 뛰고 다른 기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노조 집행부에서는 선배와 후배들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움의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전설’로만 기억되고 있는 MBC의 훌륭한 선배들과 더 많이 만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MBC 재건을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MBC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점이 되면서 함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부 우수호 조합원

아이들에게 더는 부끄럽지 않으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은걸 잃어버린 것 같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기들, MBC 안에 흘려넘치던 열정과 웃음들, MBC를 사랑하며 좋아하던 시청자들...

수많은 위협과 도전, 격변하는 방송시장 환경, 올 한해도 MBC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돌아선 시청자들의 발길을 우리의 MBC로 다시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 순간순간 나 스스로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를,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MBC를 만들어 가기를 오늘도 바란다. 새롭게 어려운 발걸음을 떼는 집행부에게는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광주지부 박재욱 조합원

연대를 위한 손, 먼저 내밀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보다 강렬할 말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려고 기자를 했다.’ 기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과 마주할 때 기자라면 한번쯤 해봤을 말입니다. 광주MBC기자라는 타이들이 박힌 명함을 건넬 때면, 예전과는 달리 선뜻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있자니, 내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가, 씁쓸함이 들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함부로 꿈꾸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말은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를 수 년째입니다. 영향력 있는 권위에 함몰되지 않도록 조합원들과 먼저 연대하고 유대감을 쌓으려고 합니다. 연대야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

다. 12기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이야말로, 방송의 가치가 사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합의 존재 가치가 재정립되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통의 원칙과 실천 기준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공통의 원칙과 실천 기준의 재정립으로 12기 조합의 존재 목적을 다시 세우고, 구성원들의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회사의 정상화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부산지부 김경민 조합원

‘첫사랑 MBC’ 와의 해후를 꿈꾸며...



고백하건대 MBC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고, 다른 회사 면접을 봤을 때도 괜히 바람피는 것 같아 가슴 한 칸 씩씩하기도 했다. 몇 년째 MBC 입사시험에서 미끄러졌을 때도 MBC가 맘기보다는 회사의 눈높이에 못 미친 내 자신을 탓했다. 몇 차례 낙방 후 프리랜서 PD로 일하다 운 좋게 부산MBC에 입사하고 6년이 흘렀다. 그동안 첫사랑의 설렘은 온데간데없고, 그렇게 좋아하던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바로 곁에서 보게 됐다.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난 그냥 슬퍼하기만 했고 그래서 비겁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버티자고, 그때

까지 말은 프로그램만 부끄럽지 않게 만들자고 자기 위로 반, 변명 반으로 시간을 버텼다. 아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언제 정상이었을 때가 있었냐는 시민들의 조소가 나오는 요즘, 힘겹게 첫사랑이었던 MBC를 불러오려 한다. ‘공정방송 MBC’ 라는 말이 주던 두근거림을 다시 찾고 싶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 싸워보려 한다. 혹은 이번에 지면 첫사랑의 기억마저 지워야한다는 절망감에 쫓겨서라도 싸워보려 한다.

이용마 기자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계좌

하나은행 850-910016-27704
예금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